



[시장동향] 세계 유단백 시장 성장세 유지 전망

-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젊은 소비자층 유입 등으로 시장 확대 추세



유제품의 건강학적 효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세계 유단백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Market.us가 발표한 세계 유단백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단백 시장 수익이 106억 4,480만 달러(약 13조 8,393억원)를 달성한데 이어 오는 2032년에는 153억 8,470만 달러(약 20조 1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제품의 건강학적 효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유단백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에는 건강함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따라 스포츠 음료 수요가 늘면서 젊은 소비자층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이 발달해 있으나,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유단백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시장 성장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 출처 : einnews.com / market.us, 8월 9일 >

[IDF뉴스] IDF WDS(연차총회) 개최 한 달여 앞으로

- 9월 12-15일 인도 델리 개최



낙농분야 세계 최대 국제행사인 IDF WDS(연차총회) 개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인도 델리에서 개최되는 금년 연차총회는 '영양과 생계를 위한 낙농(Dairy for Nutrition & Livelihood)'을 주제로 낙농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세계 전역 낙농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IDF 회장은 이번 연차총회를 통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하며 지속가능한 유제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 낙농산업 전문가들을 한데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IDF 사무총장도 이를 통해 낙농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마지막으로 IDF 인도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거듭난 인도의 원유 생산 체계를 공유해 낙농분야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고 개발도상국 낙농업계에서도 이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전했다. < 출처 : IDF 본부, 8월 11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